

주제회의
장애

노동은 자존이다

조은혜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안녕하십니까, 조은혜입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 시작한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전남은 작년에 7개월로 끝나는 공공일자리였으나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의 투쟁의 결과, 올해는 12개월로 연장이 되었고 기간이 끝나면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앞서 토론자분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일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저의 일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인 불명의 척추공동증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지체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며 20대를 보내던 차 대학원 입학시험을 3개월 앞두고 갑작스러운 통증이 온몸에 나타났습니다. 큰 수술은 두 차례 받았으나,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통증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차례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장시간 휠체어에 앉아서 활동하기에는 몸에 무리가 와서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 생활은 포기하며 집에서만 지내왔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 형태에서 중증장애인이 전공을 살려 탄력 근무를 할 수 있는 사기업은 없었습니다. 드물게 발달장애인의 경우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후 카페에 취업하는 등의 제한된 직업이거나,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이전부터 장애인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이기보다는 사무보조가 가능한 사람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은 노동 현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에 전남에서 처음 시행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저에게 맞춤형이자 절실한 근무 형태였습니다.

현재 저는 14명의 권리 중심 노동자, 10명의 근로 지원 선생님, 2명의 전담 인력 선생님 총 26명의 동료들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15시간으로 월~금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에서 하는 3대 직무가 있는데 장애 인식 개선 활동, 문화 예술 활동, 장애인권익옹호활동으로 사실 그동안 자립생활센터에서 회원자격으로 해왔던 장애인 캠페인, 각종 결의대회 참석, 편의시설 모니터링, 자조 모임 참여 등을 노동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월급으로 받는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가치를 보상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쓸모없고, 시혜적인 존재에 불과한 장애인에서 노동의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인정받은 경험은 한 개인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한 각 직무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현재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고, 또 어떠한 개선을 필요로 하는지를 각자만의 방식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동할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인해 더욱 많은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